

# ‘금호타이어 매각’ 장기전 돌입하나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허용해달라” vs 채권단 “특혜 안돼”

우선권 약정 놓고 정면충돌...중국에 지역기업 뺏기나 우려도

금호아시아나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인수 방식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컨소시엄을 허용해 주지 않을 경우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채권단은 금호측의 주장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금호측이 지난 2일 산업은행, 6일 주주협의회에 컨소시엄을 이용한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지난 10일 연 주주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부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금호측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다. 13일 오전에 열린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관련 설명회에서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박삼구 회장 및 박세창 금호아시아나 전략기획실 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냈다.

채권단과 금호 양측에서 과거 맺었던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은 주주협의회 사전 서명이 없으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아시아나에서는 이 부분을 원천 양도 불가가 아닌 주주협의회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과거 대주주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정당하게 받은 우선매수권에 대해 전략적 투자자(SI)를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미 채권단은 제3자 양도 불가 방침을 내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재무적 투자자(FI)와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략적 투자자는 재무적 투자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을 말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주 주주협의회에서 해당 요청 안건을 부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앞서 채권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불가 방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 논란 가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실제 박삼구 회장은 앞서 재무적투자자(FI)를 통해 인수 자금 마련을 완료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간 FI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채권단이 이처럼 강하게 반대 입장을 펼

치는 데도 이유가 있다. 기존 입장을 번복할 경우, 과거 경영 실패에 따른 워크아웃의 책임이 있는 박삼구 회장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박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맞설 경우 매각이 지연되거나, 결국 중국업체인 더블스타에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최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업체가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매각을 두고 채권단과 금호측이 대립각을 세워 소송전에 들어간다면 매각은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득이나 생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역 연구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 자체를 잃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17.59 (+20.24) ↓ 금리 (국고채 3년) 1.77% (-0.02)

↑ 코스닥 615.59 (+3.33) ↓ 환율 (USD) 1144.40원 (-13.00)



22개월만에... 코스피가 20.24포인트 올라 2,117.59로 연중최고치를 기록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봄바람’ 코스피...연중 최고

정치 불확실성 해소·외인들 대규모 매수세

코스피가 13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미국발 증시 훈풍에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다. 4500억원이 넘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도 지수 상승에 큰 힘을 보탰다. 한때 2122.88까지 치솟아 장중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다.

코스피가 장 중에 2120선을 넘어선 것은 2015년 5월 29일(장중 2123.39) 이후 22개월여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24포인트(0.97%) 오른 2117.59에 장을 마치며 연중 최고치 기

록(2월 23일 2107.63)도 11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지수는 전장보다 5.02포인트(0.24%) 오른 2102.37로 개장한 뒤 상승 폭을 조금씩 키우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지난 주말 경제지표 호조로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탄 것도 투자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광산업진흥회 220만달러 수출 계약

日 전시회 LED 11개사 참가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7~10일(현지시간) 개최된 '2017 일본 LED NEXT STAGE 전시회'에 국내 LED조명 11개 회원사가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 총 220만달러의 현지 시장 수출 계약 체결 등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광전자융합산업의 일환이다. LED와 유기

EL을 종합해 다루는 이 전시회에는 올해 10개국 150개사가 참여했다.

앞서 광산업진흥회는 국내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 바이어를 발굴했다. 이렇게 확보한 현지 바이어 기업과 국내 기업들을 매칭해 총 40건, 25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네오마루(주) 등 광주업체는 처음으로 해외 고정 바이어를 확보하게 됐다.

/김대성기자bigkim@

## 한전-GE 전력 인프라 구축 MOU

한전과 GE(General Electric Company)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HVDC(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날 협약식에는 한전 조환익 사장과 문봉수 전력계통본부장, 제프 이멜트(Jeff Immelt) GE 회장과 강성욱 GE코리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전 세계 HVDC 시장이 현재 약 60억 달러, 2026년 까지 150억 달러 규모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신 기술의 HVDC 기자재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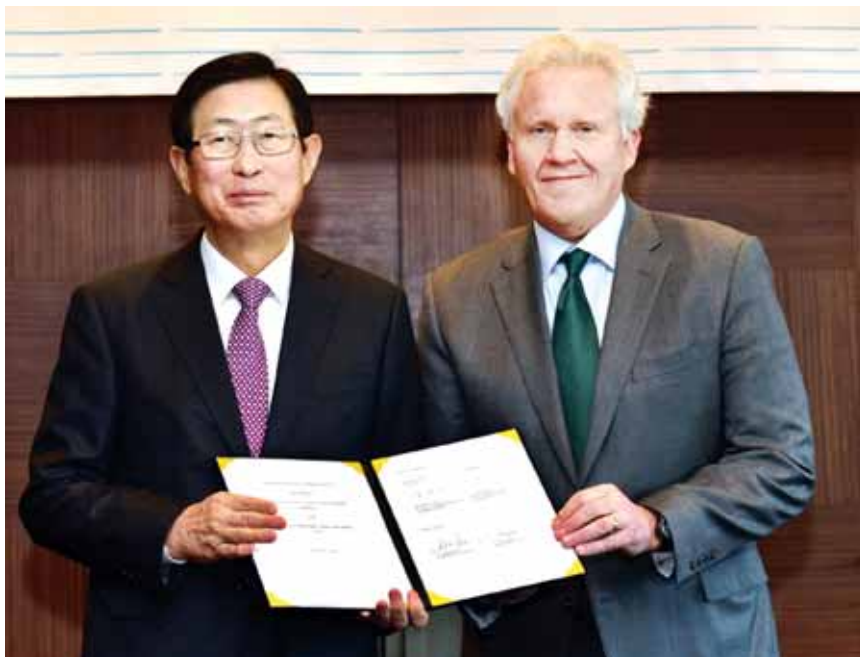
특히, 전력과 정보를 융합하는 디지털 그리드(Digital Grid)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빛

가람 에너지밸리를 HVDC 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GE는 HVDC 사업협력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3월중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관련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글로벌 기업 GE와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최초로 공동투자를 통해 전력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한다”며 “금번 투자자가 국내 HVDC 사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에너지밸리가 세계적 에너지산업 Hub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사장은 “향후 GE가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기업과 함께 상생발전하고 동반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기업 GE와 국내 최초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내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조환익사장(왼쪽)과 제프 이멜트 GE 회장. <한전 제공>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내수용 전기 건조기 본격 생산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에서 국내판매용 전기 건조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13일 삼성전자가 따르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이 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건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던 건조기를 국내 시장에 도입한다.

광주사업장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건조

기는 전기 건조기로 저온건조와 제습 과정을 반복하는 ‘히트펌프(Heat-Pump)’ 기술을 적용해 고온 건조하는 기존 방식 대비 옷감 손상을 최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방식은 제습센서가 빨래의 수분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제습기처럼 옷감 속 습기를 제거해 주는 방식으로, 5kg 세탁물 기준 표준 코스 1회 사용시 전기료가 약 180원 정도 발생해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 했다.

설치 공간에 따라 도어가 열리는 방향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좌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양방향 도어’를 적용해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건조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물통에 모을 수 있어 따로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전원만 있으면 어느 장소에든지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용 거치대를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드럼세탁기 위에 건조

기를 설치할 수 있어 공간이 좁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은 9kg의 용량에 화이트 또는 플래티넘 이녹스 색상이 적용된 3종으로 출고가는 119만9000원~139만9000원이다.

박재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건조기는 건조기가 필수가전인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 받은 제품”이라며 “이번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건조기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자연의 소리...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Hye Eun Lee**  
2017 Dinner Show